

# 당국, 오늘부터 50대도 4차 접종 가능

### 3차 접종 후 4개월 지나야...확진자는 3개월 후 가능 사전예약도 오늘부터...예약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부터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도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예약자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된다.

자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된다.

기존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였 다.

추진단은 "BA.5 등 신규변이 유행에도 현재 백신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50% 이상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해 백신을 고위험군의 선제적 보호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4차 접종을 받는 50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약 857만명으로 추산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천식 등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치매·파킨슨병 등 만성 신경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BMI≥30kg/m<sup>2</sup>) 등이다.

이들을 포함한 4차 접종 대상자는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지나야 접종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3차 접종까지 하고 코로나19에 감

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 접종이 가능하다.

단, 3차 접종 후 한 달(30일) 이내에 빠르게 확진된 사람이 3개월 간격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존 접종 간격(4개월)보다 이르게 접종을 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로 4차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활용해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도 1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 예약(1339)하면 된다. 예약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다. 4차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다만 mRNA 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행에도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 광주지방보훈청, '제31회 소안항일운동기념 추모제'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중배)은 지난 15일 완도군 소안면 '소안항일운동기념공원'에서 제31회 소안항일운동기념 추모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광양소방,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실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3일 광양읍 삼성어린이집 원아 51명을 대상으로 소방관이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완도소방, 대형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오는 8월 10일까지 관내 대형공사 현장에 방문해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담양경찰, 여성방범대원과 보행자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담양경찰서는 공동체치안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고서면 여성자율방범대원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 무안경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지난 12일 경찰서장, 각 과장, 안보자문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 여수경찰,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실시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지난 12일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전남도, '바닥분수·인공물놀이 시설' 수질·안전관리 강화

### 다음달까지 수소이온농도·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등 검사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까지 2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점검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 인공 물놀이 시설물 등이다.

전남지역에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

시설 73개소와 민간이 설치 운영 중인 24개소 등 총 97개소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 운영 15일 전까지 신고하고,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시설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등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을 중단하고, 소독과 용수

교체 등 조치를 완료 후 수질을 재검사해 수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재개방해야 한다.

조치가 완료된 수경시설은 수질 검사 결과와 조치 이행사항 등을 작성한 후 관리카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수경시설의 수질기준과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을 비롯해 관광지와 같은 다중이용 공공시설, 신규 신고 시설, 최근 3년 내 지적받은 시설에 집

중한다. 시설물 청소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 등은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상호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운 여름철에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수경시설 이용자 등이 안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장마 소강, 바다로 물린 피서객'

장마가 소강상태에 놓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16일 오후 제주도 삼양2동 삼양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만취 상태로 중앙선 넘어 '쿵'...징역2년 선고

### "음주·차량파손 심각·합의 이르지 못해 엄중처벌 불가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순천 성가톨릭병원에서 광양 엘에프스퀘어 방면 2.3km 구간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당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동승자 1명이 3주간 치료받았으며,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약 12~14주간의 치료를 받는 중상을 당했다.

순천=김승호기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비추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점으로 봤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주거침입해놓고 변조한 방문판매업 신고증 내민 60대 실형 선고

### 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

주거침입 혐의를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변조한 방문 판매업 신고증을 제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변조공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전남 무안군에서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변조한 방문 판매업 신고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증명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조한 신고증을 건네며 '방문 판매를 위해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고흥군 한 집에서 노인을 속여 가스레인지 교체 명목으로 2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스레인지 부품을 떼어 가방에 넣은 뒤 '삼발이와 헤드'가 없다. 불이 약하고 끄면 소리가 나니 교체해야 한다'고 노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으로 공문서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